

충청남도 어항의 개발방향

안기용 환경연구부장

1. 어항개발의 필요성

○ 1966년 이전에는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주로 어선 및 어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항시설을 하였고 1966년 수산청이 발족하고 어항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러 기능의 어항시설을 포함한 어항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근해 어업 진흥계획에 따라 1977년부터는 정부 지정어항(1,3종어항)에 대한 개발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방어항인 2종 및 소규모어항은 재원의 부족(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부진한 개발 실적을 보였다.

이후 국비 50%, 지방비 50%로 어항개발에 따른 지원조건을 개선하면서 지방어항의 개발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3년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관광 시설 및 기능부여 등 종합어항개발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 어항은 수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시설로서 어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요소의 공급 및 생산된 어획물의 양육·유통이 어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어항은 어장과 어촌을 연결해 주는 결절지로서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근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항을 근거지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양·어촌관광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항 개발에 있어서 기존 단순 어업지원 기능에서 탈피하여 변모하는 어항환경을 염두에 두고 어항·어촌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어항 개발 방향은 어항·어촌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항기능 즉, 어획물 양육, 출어 준비, 계선 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어촌의 소득향상이나 변화하는 사회환경 대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다 앞선 어항개발 방향은 어항의 성격 즉, 수산업활동을 위주로 하는 어항,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어항, 해양성 휴양공간으로서의 어항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배후 기능시설, 접안시설, 위판장 등의 건설이 요구된다.

○ 특히 소규모 어항의 경우 부족한 예산으로 어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소규모 어항이 위치한 지역의 입지여건이나 어업 형태에 따라 어항성격에 맞는 시설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충청남도의 어항

- 충청남도에는 그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도서·벽지에 위치하여 어장개발 또는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국가어항(기존1,3종)은 7개항이 있고, 기상악화시나 성어기시 제적어선뿐만 아니라 인근 소규모어항의 어선이 이용하는 지방어항(기존2종)은 29개항이 있으며, 지역의 정주기초어항(소규모)은 34개항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어항은 총 70개항으로 전국 총 2,242개 어항의 3%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다.
- 34개의 소규모 어항이외에 도서지역이나 마을 단위의 기타 소규모 어항까지 포함하면 충청남도에는 총 67개의 소규모 어항이 있다.
- 충청남도 어항을 시·군별로 구분하면 <표. 1> 및 <그림. 1> 과 같다.

<표. 1> 충남의 어항

시·군	합 계	어 항		
		국가어항	지 방 어 항	
		1,3종어항	2종어항	소규모어항
아산시	-	-	-	-
당진군	8개항	-	장고항, 난지도, 성구미항(3개항)	왜목항, 도비도, 용무지, 운정항, 소난지도(5개항)
서산시	15개항	삼길포항(1종)	간월도항(1개항)	별말항, 구도항, 고창개, 웅도항, 창리항, 개목항, 호리항, 도성항, 중왕항, 왕산항, 고파도, 우도항, 분점도 (13개항)
태안군	42개항	안흥항(1종) 모항(1종)	백사장, 몽대포, 학암포, 천리포, 만리포, 여은돌, 가의도, 채석포, 마검포, 방포항, 영목항, 통개항 (12개항)	황도항, 황포항, 대야도, 정산포, 황골항, 개목항, 만대항, 독개항, 정당항, 미개항, 죽고지, 장돌포, 만수동, 의점포, 탄개포, 장곰포, 가경주, 고남항, 곰섬항, 당암항, 진산항, 연포항, 뒷장벌, 청산항, 내리항, 당산항, 내파수도, 외도항 (28개항)
홍성군	6개항	남당항(1종)	어사항, 궁리항, 판교항 (3개항)	속독항, 죽도항 (2개항)
보령시	25개항	오천항(1종) 외연도항 (3종)	무창포, 녹도항,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 장고도, 삼시도, 호도항(8개항)	죽도항, 학성항, 송학항, 영보항, 고정항, 추도항, 허육도, 월도항, 육도항, 소도항, 저두항, 진고지, 초전항, 밥섬항, 명덕항 (15개항)
서천군	7개항	홍원항(1종)	송석항, 월하성(2개항)	다사항, 장포항, 원수항, 쌍도항 (4개항)
총 계	103개항	7개항	29개항	67개항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그림 1> 충남어항 위치도

연관성, 해양성 휴양공간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 2〉 어항의 기능

구 분		내 용
수산업 관련	어업생산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민재산의 안전보호 ○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생산 요소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준비, 급유, 급수, 어선수리, 선원휴식 ○ 생산물 양육
	유통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 및 가격결정 ○ 소비지로의 출하 ○ 수산물 가공
어촌 관련	지역사회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민의 생활기반 ○ 도서·벽지의 중심지 역할 ○ 어업관련산업의 지역경제 기반
휴양공간	해양성 휴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문화, 해양의 자연환경의 교류 ○ 바다, 갯벌등 체험학습 장소 ○ 해양성 레크레이션 장소

2) 어항의 특성

- 어항은 어촌지역사회의 핵으로 일종의 물적 시설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시설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어항시설은 하부구조시설(infra-structure) 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일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나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편익의 평가가 매우 어렵고, 시설 초기에 많은 고정비용을 필요로 하며 기능시설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변동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 어항은 취급 화물면에서 무역항과 달리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이 주요 품목이며, 소규모 어선이 일시에 경쟁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성수기(시간)를 기준으로 시설을 완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어항의 유형분류와 개발방향

-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항에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있다.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비교적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정주기초어항이나 지방의 소규모 어항은 재원부족 등 여러 이유로 투자와 관리가 소홀하여 어민의 재산적 피해와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어촌의 해양특성이나 문화를 바탕으로 소득기회 다

양화를 통한 어민 소득향상에도 소규모어항은 소외되어 있었다.

-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소규모 어항에 대한 투자·관리는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는 소규모어항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항의 특성·성격을 규명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개발이 요구된다.
- 따라서 어항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항 계층’, ‘어항 기능’, ‘어업 형태’, ‘상위 항과의 관계’, ‘어항위치에 따른 입지’, ‘수산 잠재력’, ‘어항의 개발율’ 등에 따라 어항을 분류하고 평가해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3〉 어항의 유형분류·평가

분류방법	세 부 분 류	내 용
어 항 의 계층분류	기초어항 →전국중심항	○보편적인 형태 ○위판 및 주민생활은 전국적중심항
	기초어항 →지역중심항	○보편적인 형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작은 범위의 세력권 형성
	기초어항→지역중심항→전국중심항	○도서지역에 기초항이 위치하는 경우 혼한 형태 ○전국중심항은 관문역할
어 항 의 기능분류	수산업 중심	○어업활동을 주도하는 어항 ○접안시설 우선 확충
	교통·물류 중심	○도서 및 육지 관문역할을 하는 어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관광 중심	○관광지 인접 또는 낚시 등이 주인어항 ○관광부대 시설 확충
	생활거점 중심	○지역경제 활동의 중심지 ○중심지로의 접근성 확보
어 항 의 형태분류	어선어업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생산
	양식어업	○선박은 양식용 지원어선
	복합형	○양식과 어선업의 복합형태
지 리 적 입지분류	도시 근교형	○일정규모의 배후 세력이 있는 어항
	주변 입지형	○배후세력이 비교적 미약하며 조건불리지역 어항
상위항과의 관계	독립형	○어업·수산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어항
	의존형	○어항의 기능을 상위항과 분담하는 형태의 어항
	종속형	○모든 어업·수산활동을 인접한 상위항에서 수행하는 형태
수산잠재력		○항세 즉 어업인구, 어선수, 어획량등 수산업 규모로 발전잠재력 평가
어항개발율 평가		○항세에 맞게 계획된 어항개발계획의 성과 분석

5. 충청남도 소규모어항 유형분류·평가 결과

- 소규모 어항의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는 각 항별 어민수, 어가수, 어선수, 어항 세력권도, 완공율 등을 조사·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로 유형분류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어항의 유형분류·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수록하였다.
- 소규모 어항의 수가 워낙 많고 조사범위가 방대하여 현지 방문조사, 설문조사, 어민·어촌계 현황조사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소규모 어항에 대한 정확한 유형분류가 되어야하나 연구의 제약성으로 충분한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가 미흡하여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표. 4〉 소규모 어항 유형분류·평가 결과

구 분		지리적 입지에 따른 분류	상위항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수산 잠재력 평가	개발을 평가
당진군	왜목항	주변 입지형	종속형	상	상
	도비도	주변 입지형	종속형	하	상
	용무지	주변 입지형	종속형	상	하
	운정항	주변 입지형	독립형	상	하
	소난지도	주변 입지형	종속형	중	하
서산시	벌말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상
	구도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완 공
	고창개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미착수
	웅도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상
	창리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상
	개목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미착수
	호리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미착수
	도성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완 공
	중왕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미착수
	왕산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완 공
	고파도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상
	우도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완 공
	분점도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상
태안군	황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완 공
	황포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완 공
	대야도	도시 근교형	의존형	중	완 공
	정산포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완 공
	황골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중	완 공
	개목항	도시 근교형	의존형	상	완 공
	만대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하
	독개항	도시 근교형	의존형	하	하
	정당항	도시 근교형	의존형	상	하
	미개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미착수
	죽고지	도시 근교형	의존형	상	하
	장들포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만수동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상
	의점포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상
	탄개포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장곶포	도시 근교형	의존형	하	하
	가경주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상
	고남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곰섬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완 공
	당압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상	완 공

〈표. 4〉 (계속)

구 분		지리적 입지에 따른 분류	상위항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수산 잠재력 평가	개발을 평가
태안군	진산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미착수
	연포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상
	뒷장별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완 공
	청산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상
	내리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하
	당산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중	하
	내파수도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미착수
	외도항	도시 근교형	독립형	하	하
홍성군	속독항	주변 입지형	종속형	상	하
	죽도항	주변 입지형	종속형	하	하
보령시	죽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완 공
	학성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하
	송학항	도시 근교형	의존형	상	완 공
	영보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미착수
	고정항	도시 근교형	의존형	상	완 공
	추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허육도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월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육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중	하
	소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저두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상
	진고지	도시 근교형	종속형	중	미착수
	초전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상	상
	밤섬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중	하
	명덕항	도시 근교형	종속형	하	하
서천군	다사항	주변 입지형	종속형	상	하
	장포항	주변 입지형	종속형	상	미착수
	원수항	주변 입지형	독립형	상	완 공
	쌍도항	주변 입지형	종속형	하	미착수

6. 어항의 유형에 따른 개발방향

○앞에서 어항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어항 분류방법과 이에 따른 충남도내의 소규모 어항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항에서는 어항법에 규정된 어항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어항 성격에 맞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어항의 유형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1) 도입 가능한 어항시설

○어항시설은 크게 기본, 기능, 문화·복지, 관광·휴게시설로 구분되며 어항의 유형에 맞도록 개발방향을 수립하여야 예산절감 및 시설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가. 기본시설

- 기본시설은 어항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로 어선의 안전과 원활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을 말한다.

〈표. 5〉 어항의 기본시설

구 분	시설의 역할	시 설 종 류
외곽시설	항내의 정온도 확보를 위한 시설	방과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돌제, 흙벽 등
계류시설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의 양육을 위한 시설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계선향, 잔교, 부잔교, 선착장, 선양장 등
수역시설	어선의 항행이나 휴식을 위한 시설	항로, 정박지

나. 기능시설

- 어항기능시설은 조업을 준비하기 위한 여타의 시설과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반 시설 및 어항관리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수산업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표. 6〉 어항의 기능시설

구 분	시설의 역할	시 설 종 류
수송시설	어민의 생활과 어획물 및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한 시설	철도, 도로, 교량, 주차장, 헬리포트 등
항행 보조시설	어선의 항행을 위한 보조시설	항로표지, 신호·조명시설 등
어선·구 보조시설	어업활동을 위한 어선·어구의 수리·보관시설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보급시설	어선에 필요한 보급품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시설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시설, 선수품보급장 등
수산물 판매시설	어획물 판매를 위한 제반시설	수산물시장,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 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 가공시설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통신시설	어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육상무선전신, 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신설 등
공공시설	어항관리에 필요한 제반 시설	어항관리시설, 해양관측시설, 선박출·입 신고기관 등
정화시설	어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도수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다. 문화·복지시설

○ 어민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설로 복지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이 있다.

〈표. 7〉 어항의 문화·복지시설

구 분	시설의 역할	시 설 종 류
복지시설	어민의 건강·복지시설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	어민의 삶의 질 향상시설	전시관, 도서관, 학습관, 공연장 등
어항환경 정비시설	어촌·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광장, 조경시설 등

라. 관광·휴게시설

○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 시설로 장래 어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 8〉 어항의 관광·휴게시설

구 분	시설의 역할	시 설 종 류
관광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및 지역특화 시설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생선횃집 등
휴게시설	관광객을 위한 휴식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오락시설 등

마. 기타시설

○ 기타의 시설로는 각 어항시설의 부지와 주민 편의시설 즉 여객선, 생활필수품운반선, 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여객의 편의시설이 있다.

2) 어항 유형별 개발방향

○ 어항은 도입 가능한 모든 시설을 갖추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으나 다수의 어항을 일시에 개발하기는 어려우므로 어업형태, 입지, 상위항과의 관계 등에 따라 어항의 유형과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맞는 어항시설을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항 개발방향 검토 또는 개발 시행시 우선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시설들은 어항의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어항 계층에 따른 개발방향은 기초어항의 경우 방파제 등 어선의 접안 및 파고를 고려한 파랑 차단시설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중심어항의 경우 위판 등 어획물의 유통에 필요한 시설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전국중심어항의 경우는 접안·방파 및 어획물 유통기능 뿐만 아니라 장기출어 어선의 보급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어항 형태에 따른 개발방향은 어선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획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 및 보급시설이 필요하고 일시에 많은 수의 어선이 집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하며, 양식어업이 주로 행하여지는 어항은 어선어업에 비해 어선의 규모가 작고 연중 활동하는 어선수가 거의 일정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밖에 어항 유형별 개발방향은 <표. 9> 와 같다.

<표. 9> 어항 유형별 개발(계획)방향

분류방법	세부분류	개 발 방 향
어 항 의 계층분류	기초어항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초시설 확충
	지역 중심항	○유통, 보급, 위판시설 확보 ○교통·물류·관광기능 제고
	전국 중심항	○수산자원개발 및 수산업지원기능 확충 ○물류·유통기능 제고
어 항 의 기능분류	수산업 중심	○물양장, 선착장, 잔교 등 접안시설 우선 확보 ○방파제 등 외해로부터의 파랑 차폐 시설 ○위판, 냉동·냉장, 보급, 어선수리 등 배후기능시설 확보
	교통·물류 중심	○화물선 접안 및 하역시설 ○여객선 접안 및 안전한 승·하선 시설 ○대합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관광 중심	○생선횃집, 마리나, 낚시터, 해수욕장 등 여가 활용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등 휴식시설 ○쓰레기 처리, 오폐수처리 등 환경처리시설
	생활거점 중심	○도로망 확충, 인근 중심지로의 접근성 확보 ○진료시설, 복지회관, 도서관 등 복지시설
어 항 의 형태분류	어선어업	○성어기시 어선수를 고려한 시설계획 ○방파제, 물양장 등 어선의 안전정박시설 ○냉동·냉장, 급수·급유 등 보급 및 가공시설
	양식어업	○비교적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시설계획 ○어구제작·수리장, 야적장, 사료보관창고 등 어선·어구보조시설
	복합형	○성어기시 어선수를 고려한 시설계획 ○배후기능시설 확보
지 리 적 입지분류	도시 근교형	○낚시터, 생선횃집, 수산물직판장, 주차장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항내 경관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주변 입지형	○어항으로의 접근성 제고 ○특화된 우량 어업육성
상위 항과의 관계 분류	독립형	○접안, 방파시설등 기초어항시설 확충 ○위판, 냉동·냉장, 보급시설 확충
	의존형	○기상악화시 대피가능시설 ○어구수선, 양육 등 어촌기초 활동시설 확충
	종속형	○어선의 대피 및 어촌기초 활동이 인근 상위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를 반영한 개발계획 ○어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개발

7. 맺음말

○충청남도의 2001년 어업 종사자는 약 9천가구, 26천명으로 전국의 77천가구, 234천명의 11%~12%의 수준이나 어획량은 전국 2,665천톤 중 충청남도 77천톤으로 약 3%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다. 그나마 충청남도 어획량 감소율 연평균 2% 정도로 전국 어획량 감소율 3%보다 밀돌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어업여건 악화속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

나, 도시화에 따른 어업환경 악화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및 생활환경 등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어항·어촌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민수의 감소는 불가피 하다.

○ 따라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어업환경 및 어가 경제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람직한 어항개발 방향과 더불어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어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어항이라 하면 단순히 바닷가에서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한 물양장 및 방파제 시설만을 연상한다. 그러나 21세기의 어항은 어업자원 감소방지를 위한 노력, 어업생산 활동이 일정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대형화 및 현대화 노력과 더불어 생산된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즉 가공시설과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경로까지를 어촌·어항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 어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다.

어항은 어장과 어촌지역을 연결하는 결절지로서 수산업 활동을 위한 터전일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이며, 해양관광 소득을 위한 장소이다. 따라서 어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개의 어항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어항계층, 어항의 기능, 어업형태, 수산 잠재력, 해양관광자원, 해상교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위어항의 경우는 다기능어항으로, 소규모 어항의 경우는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산재해 있으므로 고유한 색깔을 지닌 어항으로 개발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발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간척사업이나 해사채취, 준설매립으로 바다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 어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해수유통수로 설치, 친수공간 확보 등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어항관리를 위한 협조체계 유지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지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조직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항·어촌과 지방정부의 해양수산과 및 각 시·군의 해양수산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어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어항일지라도 지역적 특성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항이 대부분이며, 소규모의 지방어항은 지역의 고유문화를 유지한다거나 특산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항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여야 한다.

넷째, 어항개발 투자방안 개선이다.

그간의 어항개발은 항간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법정어항을 추가로 지정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어항에 집중투자를 하였으며, 어항의 기본시설 즉 방파제 물양장 위주로 투자를 하였다. 이는 어선어업활동이 다소 용이해 졌음을 뜻하나 어선의 현대화로 항간거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또한 완공율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어항투자방향은 국가어항의 경우 위판기능, 냉동·냉장기능, 유통기능 등 어항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완공위주로 투자방

항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산잠재력이 있는 지방의 소규모어항은 정주기초어항으로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어항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한국어항협회,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계획연구, 2000. 5.
- 2) 한국어항협회, 어항계획의 요체, 1996. 3.
- 3) 한국어항협회, 어항종합개발계획연구, 1995.
- 4) 한국어항협회, 한국의 어항, 1999. 12.
- 5) 한국어항협회, 어항·어촌 연구, 1999. 12.
- 6) 해양수산부,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1997. 12.
- 7) 해양수산부, 삼길포항 기본설계 용역보고서, 2000. 7.
- 8) 해양수산부, 오천항 정비계획 조사용역보고서, 2000. 6.
- 9) 해양수산부, 태안항 기본계획 보고서, 2000. 9.
- 10) 해양수산부, 비인항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2001. 3.
- 11) 해양수산부, 남당항 기본설계 용역보고서, 2000. 7.
- 12) 해양수산부, 외연도항 정비계획 조사 용역보고서, 2000. 6.
- 13) 수산청, 홍원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1992. 3.
- 14)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01. 8.
- 15)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1999. 12.
-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정부 해양정책발전 장기구상, 1999. 12.
-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규모어항 개발유형 연구, 1999. 12.